

# "임명 동의제

# 깨갓다"

# 한심한 망언

사측 고위 인사들

"SBS 임명동의제 깨갓다" 잇따라 발언

2017 10.13 합의 핵심 조항,  
1년 반 만에 폐기 협박

# “임명 동의제 깨겠다” 윤석민의 SBS 장악 시나리오, 수면 위로 드러나다

## 사측 고위 인사들, 임명동의제 파기 발언 잇따라

“SBS 임명동의제를 깨겠다” 이 같은 발언이 최근 사측 고위 인사들의 입에서 공공연하게 나왔다는 사실을 전국언론노동조합 SBS본부가 확인했다. SBS의 대주주인 SBS미디어홀딩스의 고위 관계자는 물론 SBS 임원들도 지난주 이 같은 발언을 공식, 사석에서 내놓은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SBS 이사회 이사 또한 임명 동의제 파기 발언을 비슷한 시기에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폭탄 발언들은 지난주 범 SBS비상대책위원회와 노동조합이 태영건설의 방송 사유화 사례들을 연속 고발한 뒤에 잇따라 나왔다.

SBS 구성원들은 물론, 국민과 시청자들에게도 큰 충격을 안긴 ‘뮤진트리 사익편취’, ‘태영건설 전무의 고용세습’ 같은 충격적인 실태들에 대해 사과나 반성은 고사하고 <방송독립과 독립경영>의 상징과도 같은 제도적 장치를 허물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지난 3월 윤석민 태영건설 회장 취임 이후에 벌어진 SBS 장악 움직임을 보면, <임명 동의제 파기> 발언은 결국 윤석민 직할 체제의 완성을 위해 마지막 남은 장애물, 마지막 남은 SBS 구성원들의 대주주 견제 장치를 해체해 버리겠다는 확실한 속내를 여과 없이 드러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 놀랍지도 않은 한심한 망언 윤석민의 SBS 장악 시나리오가 드러났다

지난 3월부터 수순을 밟기 시작한 윤석민 태영건설 회장의 방송장악은, SBS콘텐츠허브 이사회 장악에 이어 SBS 이사회 장악, 직할체제 조직 개편으로 이어져 왔다. 이어서 나온 <임명동의제 파기> 발언은 SBS를 완전히 대주주와 태영건설의 뜻대로 좌지우지 하겠다는 방송 장악 시나리오를 드러낸 것이다. SBS 사장과 본부장들을 대주주의 입맛대로 교체하고 임명해, 태영건설의 이익을 위해 복무하게 만들겠다는 구체체로의 회귀 선언에 다름 아니다.

지난 2017년 임명동의제에 노사가 합의한 배경에는 SBS 구성원들의 RESET! SBS!! 투쟁과 촛불 시민혁명과 탄핵이라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태영건설 윤석민 회장 직할 체제가 구축되자 노사 합의를 일거에 파기하기 위한 파상 공세가 시작된 것이다. 임명 동의제

를 깨겠다는 것은 결국 윤석민 회장이 그 동안 했던 모든 약속을 파기하고 SBS를 재장악 하겠다는 의미다.

## 임명동의제 시행 1년 반 만에 ‘폐기’ 협박

SBS의 임명 동의제는 지난 2017년 창업주 윤세영 명예회장과 당시에 이미 대주주인 윤석민 회장이 SBS 경영에 일체 관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퇴진하면서, 소유 경영 분리 약속을 보증하고 독립경영 체제를 제도적으로 완결하는 차원에서 도입된 것이다. 사장 및 공정 방송 책임자(본부장)에 대한 구성원들의 임명 동의제는 대한민국 어느 방송사도 갖추지 못한 제도적 장치로 높이 평가 받았다.

2017년 10.13 합의에 따라 도입된 SBS 임명 동의제는 2017년 11월 SBS 사장과 시사교양·보도·편성 최고 책임자, SBS A&T 사장에 대한 구성원들의 투표로 첫 시행됐다. 예상대로라면 첫 투표에서 2년이 지난 올 연말쯤 두 번째 임명 동의제 투표가 이뤄져야 할 상황이다.

그러나 사원들의 동의 아래 사장을 임명 하도록 한 임명동의제도의 본질과 취지는 콘텐츠허브 이사회 장악, SBS 이사회 의장 교체 시도 등으로 이미 크게 훼손된 상태다. 특히 사원들의 임명동의로 출범했던 박정훈 사장 체제가 독립 경영 체제 실현의 역사적 책무와 구성원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윤석민 직할 체제 구축의 앞잡이 노릇을 자처하면서 임명 동의제도를 스스로 무력화 해 버린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윤석민 회장 측근들과 박정훈 경영진의 핵심 인사들이 잇따라 내놓고 있는 임명 동의제 파기 발언은 SBS를 다시 사유화하고 싶은 윤석민 회장의 사욕과 이미 구성원들의 신뢰상실로 임명 동의제 하에서 임기 연장이 불가능한 박정훈 체제 핵심 인사들의 이해가 맞아 떨어진 결과이기도 하다. 가느다란 호흡을 이어가면서 심폐소생술을 기다리고 있는 임명 동의제와 SBS 독립 경영 체제에 완전히 사망선고를 내리지 않고는 버틸 수 없는 핵심 책임자들의 저질 협박에 다름 아닌 것이다.

## 어설픈 협박...할 테면 해 보라

임명동의제도의 시행은 그 노사합의를 방송통신위원회 2017년 지상파 방송 재허가 심사에 제출해 사회적으로 공중 절차를 거친 SBS 독립 경영을 보증하는 대국민 약속이다.

국민과 시청자를 기만하고, 구성원과의 신뢰를 모두 무너뜨리고 윤석민 직할 체제를 구축해 SBS를 태영 건설의 노리개로 만들 작정이라면 그렇게 해 보라. 어설픈 협박으로 노동조합과 SBS 구성원들에게 겁이라도 쥐 보겠다는 윤석민 회장과 그 측근들의 한심한 발상에 그저 웃음만 나올 뿐이다.

비상대책위를 중심으로 한 SBS 구성원들은 알파한 계산과 어설픈 협박으로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자들에게 끝까지 책임을 묻고 수령에 빠진 SBS 독립 경영 체제를 다시 바로 세워 낼 것이다. 그리고 새로 세울 SBS에 윤석민 회장과 그 수하들에게 허락된 자리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 방송사 최초, SBS 임명동의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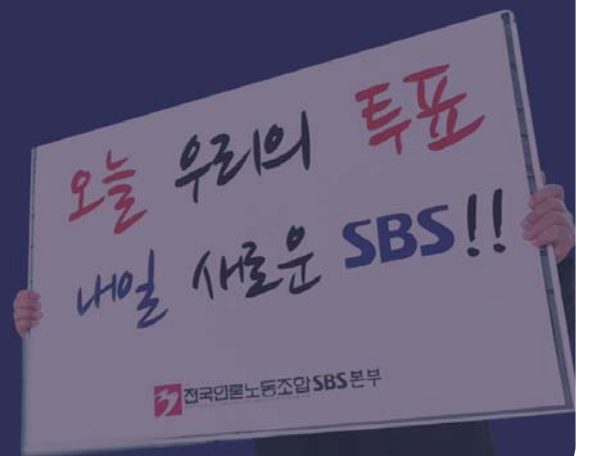
\*2017년 10월 13일 노사 합의

\*2017년 11월 역사적인 첫 임명동의 투표 시행

- SBS 대표이사 사장, SBS A&T 대표이사 사장, SBS 보도·시사교양·편성 최고 책임자에 대한 직원들의 찬반 투표 실시

### 임명 철회의 조건 및 재선임 시의 적용

- ① 대표이사 사장은 SBS 재직 인원의 60% 이상이 반대할 경우 임명을 철회.
- ② 보도 부문 최고책임자는 보도 부문 재직 인원의 50% 이상이 반대할 경우 임명을 철회.
- ③ 편성, 시사교양 부문 최고책임자는 각 부문별 재직 인원의 60% 이상이 반대할 경우 임명을 철회.
- ④ 대표이사 사장을 재선임할 경우 임명동의제를 다시 실시하고, 중간평가 적용대상인 SBS 편성, 시사교양, 보도 부문 최고 책임자를 재선임할 경우에는 임명동의제를 실시하지 않으며 중간평가로 갈음.



# 사측, 참담한 경영 대참사 과정 '자백'

## 해명 통해 사실로 입증된 부천영상단지 탈락의 부끄러운 전말



전국언론노동조합 SBS본부(본부장 윤창현)가 지난 4월 2일 노보를 통해 밝힌 부천영상단지 공모 경영 대참사에 대해 사측이 무려 열흘이 넘는 지난주 금요일(4월 12일)에야 해명을 내놨다. SBS 구성원들에게 크나큰 실망과 부끄러움을 남긴 경영참사를 저질러 놓고도 묵묵부답하며 열흘을 흘려 보내 놓고서야 마지못해 내놓은 해명인데, 그마저도 반성과 사과는 한마디도 없었다.

### 경영참사의 모든 문제점을 사실로 확인해 준 해명 글

오히려 노동조합이 앞서 제기한 <태영건설의 경영 개입>, <조직 내 혼란>, <호반 측에 특혜부여> 같은 문제점들은 모두 사실이라는 것이 사측 해명 글을 통해 입증되었다. 경영참사 과정의 사실 관계가 이미 명백히 드러나 있고, 사내 많은 직원들이 속속들이 사정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사측 역시 대놓고 거짓말을 할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 <태영건설의 경영개입> 입증됐다

지난 4월 2일자 노보에서 SBS 본부는 태영건설의 경영 개입을 고발한 바 있다.

신한 측을 우선 협상 대상으로 선정한 사실을 뒤늦게 박정훈 사장으로 부터 보고 받은 대주주인 태영건설 윤세영 명예회장과 윤석민 회장은 불호령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태영건설에서 윤세영 명예회장, 윤석민 회장, 신경렬 미디어홀딩스 사장, 박정훈 사장, 이재규 태영 부회장 이동희 경영본부장 등이 참여한 회의가 열렸으며, 이 자리에서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을 뒤엎고, 사업규모를 축소해 2차 제안을 받기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 SBS 노보 285호 (4월 2일자)

위와 같은 내용은 아래 사측 해명 글을 통해 사실임이 입증되었다. 다만 명백한 경영 개입에 대해 사측은 '자문을 받았다'고 호도하고 있을 뿐이다.

사장은 혼선이 빚어지자 전략기획실장 대신 담당업무를 경영본부장으로 교체하고 (사규 직제규정 제8조: 분장업무는 사장의 특별한 지시가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3월 4일 오후에 태영빌딩 13층에서 태영건설 임원들과 SBS 사장, 경영본부장이 참여한 자문 미팅을 진행함

<사측 해명글 중 '태영건설로부터 자문을 받았다'고 표현하고 있다>

### <호반 측에 상식 밖의 특혜 부여> 입증됐다

호반 측에 경쟁 컨소시엄인 신한 측의 제안 내용을 사측이 노골적으로 유출하며, 신한과 같은 수준으로 제안서 요건을 맞추라고 도움을 주는 일까지 있었다는 지난 노보의 지적도 사측 해명글을 통해 명백한 사실임이 확인됐다.

### 심사기회 형평성 부여?..자기 모순에 빠진 해명 논리

사측은 황당하게도 '심사기회 부여 형평성과 회사 이익 극대화'를 위해 이런 일을 했다고 해명했다. 역지로 해명을 꿰어 맞추려 하다 보니 사측의 해명 논리가 자기 모순에 빠져 있다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는 것 같다. 사측이 주장하는 <심사기회 부여의 형평성>은 왜 특정 업체인 호반건설에게만 유리하게 적용됐나.

백 번을 양보해 사측 해명이 맞다고 치면, 역으로 호반 측이 100억원 추가 지원 의사를 밝힌 사실을 신한 측에 다시 알려주고 더 좋은 추가 조건을 요청할 생각은 왜 안 했는가?

신한-금호건설 컨소시엄과 KB-호반건설 컨소시엄이 토지와 건축비 항목에서 SBS에게 가장 유리한 동일 조건을 제시함. (단, 신한-금호건설 컨소시엄이 입찰 항목에 없는 100억원 추가지원 의사를 밝힘)

이에 회사는 심사 기회 부여의 형평성과 회사 이익을 극대화한다는 차원에서 KB-호반건설 측에 타 컨소시엄의 추가지원 내용을 알렸고, KB-호반건설 측이 즉시 추가지원이 포함된 제안서를 제출함. (회사는 이 같은 조치가 법률적으로 문제 소지가 없는 지 검토에 착수,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음)

<사측 해명글 중 신한이 제시한 조건을 호반 측에 알려준 사실을 인정했다>

### 선정 가능성 최우선 고려?...갈수록 앞뒤가 안 맞는 해명

또 사측은 해명 글에서 부천영상단지 공모 '선정 가능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신한 컨소시엄에서 호반 컨소시엄으로 짝을 바꿨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 ① 선정 가능성 최우선 고려

신한-금호건설 컨소시엄의 대표사는 MDM이라는 전문 시행사로서 시행사의 최대관심은 개발이익 극대화임. 이런 점을 고려해 각 지자체는 일반적으로 개발사업 발주시 시행사보다는 건설사를 선호하는 편을 적극 고려

<사측 해명글 중 '공모 선정 가능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측 주장과는 달리 신한 컨소시엄은 SBS를 놓치고 난 뒤에도 공모 결과에서는 호반 컨소시엄보다 더 높은 점수를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측의 해명이 왜 꿰어 맞추기 식의 뒤늦은 변명인지 보여 주는 증거다.

### <토지 3천평, 건축비 600억 할인, 추가 100억 지원> 모두 날아갔다

결과적으로 SBS는 <지하철역 인근 땅 3천평 무상 확보>, <건축비 600억 할인>, <SBS 직원 복지비와 기자재 공급 등 100억원 지원> 같은 기회를 날려버렸다. 사측 표현대로 '새로운 사업 기회'가 물 건너 간 것이다. 사측 주장대로 정말로 몇몇하고 문제가 없는 과정이었다고 한다면 새로운 사업 기회를 날려버린 경영진의 무능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사측이 감사위원회 특별감사를 회피할 이유가 없다. 사규에 정한 특별감사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밝히면 될 일이다. 뒤늦은 해명으로 피해 가지 말고 누구 말이 맞는지 특별감사를 통해 가리면 될 일이다.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를 위해 노동조합의 참여나 객관적인 외부 전문가 추천을 요청한다면 흔쾌히 응할 용의가 있다.



'부천영상단지 공모 탈락' 특별감사 요구 서명  
**그러니까, 특별감사하자!**

SBS 기술인협회 SBS 기자협회 SBS 방송촬영인협회 SBS 아나운서협회 SBS 영상기자협회 SBS PD협회

범SBS 비상대책위원회

# 범SBS비대위, 특별감사 서명운동 돌입

## SBS 6개 직능단체와 노동조합 중심으로 진행

범SBS비상대책위원회는 <부천영상단지 공모 탈락 특별감사를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시작합니다.

사측의 주장대로 부천영상단지 공모 탈락 과정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특별감사를 회피할 이유가 없습니다. 누구 말이 맞는지 감사를 통해 명확하게 가리면 될 일입니다.

서명운동은 6개 SBS 직능단체(기술인협회, 기자협회, 방송촬영인협회, 아나운서협회, 영상기자협회, PD협회)와 전국언론노동조합 SBS본부를 중심으로 진행합니다.

서명지는 목동사옥 1층 로비 농성장과 일산 조합원 휴게실에 비치돼 있고 각 직능단체를 통해서도 서명이 가능합니다.

모든 SBS 구성원 여러분의 힘을 모아 주십시오!

부천영상단지 공모 탈락 특별감사를 요구하는 SBS 서명운동

**“그러니까 특별감사하자!”**

- 사측 주장대로 멋있고 문제 없다면 특별감사를 회피할 이유가 없다!
- 사규에 정한 감사위원의 특별감사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밝혀보자!
- 뒤늦은 해명으로 피해까지 알고 누구 말이 맞는지 특별감사를 통해 가려보자!

번호	소속	이름	휴대전화번호(뒤 4자리)	서명
1				
2				
3				
4				
5				
6				
7				
8				
9				
10				

## 내 직장 SBS를 지키기 위한 제보를 받습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SBS본부와  
 범 SBS 비대위는  
 모든 SBS 구성원 여러분의  
 제보를 받습니다.

1. SBS의 사회적 영향력을 악용한 태영건설의 사익추구 행위
2. 방송독립 침해 행위를 포함해 태영건설과 결탁한 경영진의 부당한 인사, 행정 지시
3. 방송-보도 제작 관련 각종 부조리와 비위 행위

[resetsbs2019@gmail.com](mailto:resetsbs2019@gmail.com)

이 메일을 통해 접수되는 제보는 윤창현 비대위 상임공동위원장(언론노조 SBS본부장)만이 직접 확인하며, 익명 및 기명 제보 모두 철저한 보안이 유지됩니다.